
환율하락에 따른 부산지역 수출업체 영향 조사

2014. 6

【 조사 개요 】

1. 조사명 : 『환율하락에 따른 부산지역 수출업체 영향 조사』
2. 조사 목적 : 최근 환율하락 지속에 따른 지역 수출제조업체들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역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 기초 자료로 활용
- 3 조사 기간 : 2014. 5. 23 ~ 6. 20
4. 조사 대상 :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약 300개체
(조사표 회수 150개체)
5. 조사 항목 : 환율 하락에 따른 피해, 최근 환율 수준에서의 경상이익
상태, 환위험 관리 방안, 정부의 지원책 등
6. 조사 방법 : 조사표를 바탕으로 한 면담, 팩스, 전화 등

목 차

1. 환율하락 지속에 따른 피해 현황	4
가. 업종별 피해 현황	5
나. 주요 피해 사례	6
2. 최근 환율 수준에서의 경상이익 상태	10
3. 지역 수출기업의 걱정, 손익분기점, 수출불가 환율	12
4. 환율하락 지속에 따른 대응방안	13
5. 환율하락에 따른 환위험 관리 방안	14
6. 환율하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15
7. 정책제언	16

1. 환율하락 지속에 따른 피해 현황

환율하락 지속에 따라 주요 수출제조업체의 78.0%가 피해 발생 혹은 향후 피해 예상.

- 환율하락 지속에 따른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 발생』 53.3%, 『향후 피해 예상』 24.7%, 『피해 없음』 22.0%로 나타남
 - 『피해 발생』, 『향후 피해 예상』 응답이 전체의 78.0%에 달해, 최근 환율하락 지속에 따른 지역 수출제조업체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피해 발생』 혹은 『향후 피해 예상』 응답 업체의 주요 피해 유형은 환율 하락에 따른 기 수출계약 물량의 환차손 발생(76.9%), 주요 고객 이탈(12.8%), 수출 계약 취소(8.5%) 등의 순
 - 피해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의 경우는, 원재료의 수입비중이 높아 환차익이 발생하며 환율하락 피해가 상쇄되었거나, 결제수단을 원화로 사용함에 따라 피해가 없었으며,
 - 한편, 외화부채가 많은 일부업체는 환율하락으로 이익 발생

환율하락에 따른 피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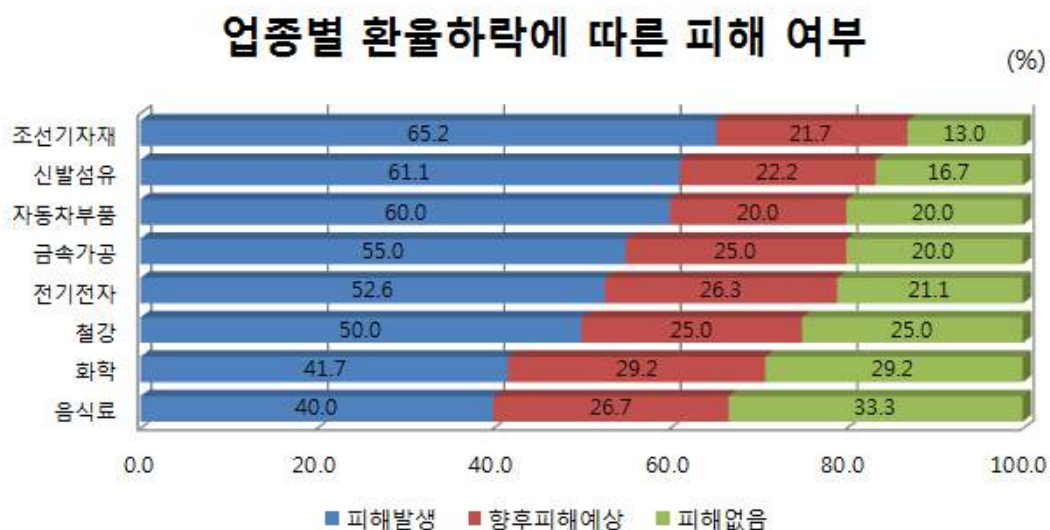
○ 주요 업종별로 환율하락에 따른 업종별 피해 현황을 보면,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가장 피해가 컸음

-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피해 발생』 응답이 65.2%로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높아, 환율하락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조선기자재 업종의 주요 수출국가가 일본이며, 엔화를 주요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 주요 통화 중 원/엔 환율이 엔저 기조 지속까지 맞물리면서 크게 하락(3년래 고점대비 36% 하락)함에 따라, 환차손 등의 피해가 타 업종보다 컸음.
- 또한, 계약 시점과 수출대금 회수 시점 간의 기간이 타업종 대비 길어(평균 6개월~1년), 환율 하락 폭만큼 수출업체에 많은 피해 발생

○ 신발·섬유 업종은 중국, 동남아 등에 주로 수출,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한 가운데, 환율하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피해가 크게 나타남

○ 반면, 상대적으로 내수비중이 큰 음식료 업종은 환율하락의 영향이 가장 적었으며,

○ 수입원자재 사용비중이 높은 화학 업종은 환율하락에 따른 원·부자재 수입의 환차익 발생, 완제품 수출의 환차손을 일정부분 상쇄하며 환율하락에 따른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기업의 주요 피해 사례>

가. A업체 (강서구 소재, 조선기자재 제조업)

○ 피해사례

- 2013년 매출액은 700억, 이중 수출액은 600억
주요 수출국가는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이며 주요결제통화는 달러화.
- 작년 한 해만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으로 약 20억원 피해 발생
이는, 계약일과 대금 수금일과의 시차가 약 1년간량 존재하는데, 2012년 원/달러 환율 1,100원대 계약 물량이 대금 수금 당시는 1,000원대로 떨어졌기 때문
- 올해도 환차손이 지속될 전망.
- 지난해 약 1,120원대에 계약한 물량이 최근 1,010원대로 급격히 하락하며 환차손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
- 이뿐만 아니라, 계약 시, 순차적으로 건조될 선박 다수 척에 들어갈 물량을 한꺼번에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물품 인도까지의 시차는 3년까지도 존재, 이로인해, 향후 환율하락 기조 지속 시 지속적인 환차손이 전망되고 있음

나. B업체 (강서구 소재, 조선기자재 제조업)

○ 피해사례

- 2013년 매출액은 130억, 이중 수출액은 80억
주로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결제 통화는 달러화.
- 계약일과 대금 결제일과의 시차가 약 6개월~1년 가량 소요되며, 이에 따라 연초 1,050원~1,070원대에 계약했던 물량들의 선적일이 다가오는데 최근 환율이 1,010원대 머무름에 따라 환차손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
- 2분기 수출액은 약 30억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약 1.5~2억원의 환차손 발생 예상
- 최근 저가수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환차손까지 겹치면서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될 전망

다. C업체 (강서구 소재, 조선기자재 제조업)

○ 피해사례

- 2013년 매출액은 1,100억, 이중 수출액은 약 600억
일본(100억원), 중국, 미국, 유럽 등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결제 통화는 달러화.
- 계약일과 대금 결제일과의 시차가 약 3~4개월 가량 소요되며, 최근 4개월 이내에 환율이 급격히 하락한 만큼 환차손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약 4개월 전, 계약 당시 원/달러 환율 1,070원대에 계약했으나, 최근 환율이 1,010원에 머무름에 따라, 수출금액의 약 3~5% 가량 환차손이 발생
- 2분기 수출금액이 150억 수준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차손으로 5억 가량 손실 전망

라. D업체 (서구 소재, 음식료 제조업)

○ 피해사례

- 2013년 매출액은 약 350억, 이중 수출액은 200억 가량
주 수출국은 일본이며, 엔화 결제
- 급격한 엔화약세로 환차손이 크게 발생
작년의 경우, 수출금액의 5%이상 환차손이 발생, 약 10억원 손실
- 이에, 일본 바이어측에서 급격한 환율하락에 따른 가격조정을 하였지만, 미미한 수준
- 최근의 환율하락 기조가 지속될 경우, 가격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격인상이 되면, 일본 바이어 측에서 자국 내 제품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커 손해를 감수하고 수출을 지속할 예정

마. E업체(사하구 소재, 음식료 제조업)

○ 피해사례

- 연간 수출액은 약 10억원 수준
- 주요 수출국은 일본, 미국, 유럽 등
- 일본과는 2011년 첫 수출이 이루어졌으며 꾸준히 일본 시장 공략 확대되어 연간 3억원을 일본에 수출
- 그러나, 최근 급격한 엔화약세로 인해 약 3%의 환차손이 발생있으며,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
- 가격보다는 품질을 바탕으로 일본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향후 엔화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경우, 일본 바이어의 주문 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음

바. F업체 (강서구 소재, 조립금속 제조업)

○ 피해사례

- 일본 업체와의 거래 계약시, 계약서 상에 물품인도시 가격변동폭이 3% 이상 발생하면 계약대금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 명시.
- 엔화의 급격한 약세로 가격 변동이 불가피하였고, 위 조건에 따라, 환율 하락으로 업체가 가격 인상을 요구하자, 일본 측에서 계약을 파기하며 계약 2건이 취소됨

사.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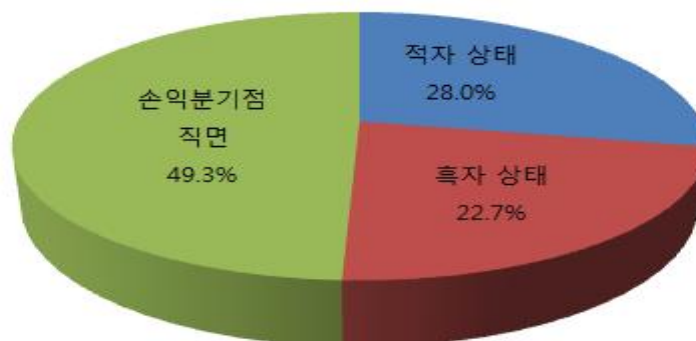
- 이밖에 가격 경쟁력 약화에 따른 입찰 실패, 바이어와의 거래 중지, 환율하락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 가중

2. 최근 환율 수준에서의 경상이익 상태

최근 환율 수준에서 지역 수출 기업의 상당 수가 적자상태 혹은 손익분기점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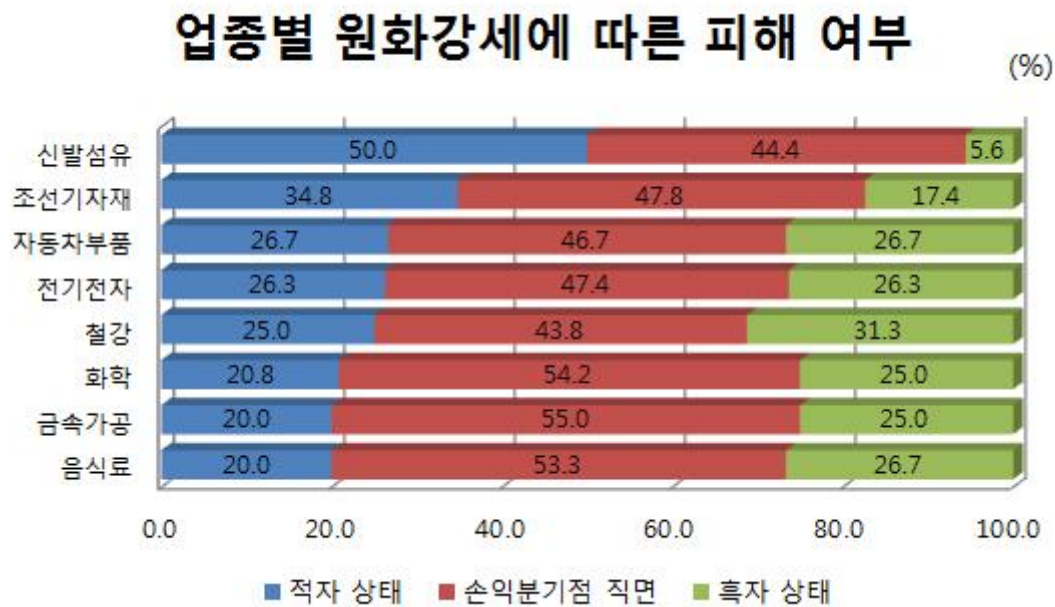
- 최근 환율 수준에서의 지역 수출 기업 경상이익 상태는 『손익분기점 직면』 49.3%, 『적자 상태』 28.0%, 『흑자 상태』 22.7% 순
 - 최근 원/달러 환율 수준에서(1,010~1,020원/달러) 조사 응답업체 중 28.0%의 업체가 이미 경상 이익이 적자 상태이지만, 일정부분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거래처 유지 및 공장 가동을 위해 수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업체는 향후 단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업계 경쟁이 치열한 기업은 수주 감소를 우려하여 단가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
 - 조사응답업체 중 절반가량은 최근의 환율 수준이 손익분기점에 직면, 수익성이 크게 나빠지고 있으며,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타분야 원가절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2.7%는 여전히 경상이익이 흑자상황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높은 내수 판매 비중 또는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채산성이 양호한 상황

최근 환율에서의 경상이익 상태



○ 원화 강세에 따른 피해 여부를 업종별로 보면, 신발섬유 업종에서 가장 피해가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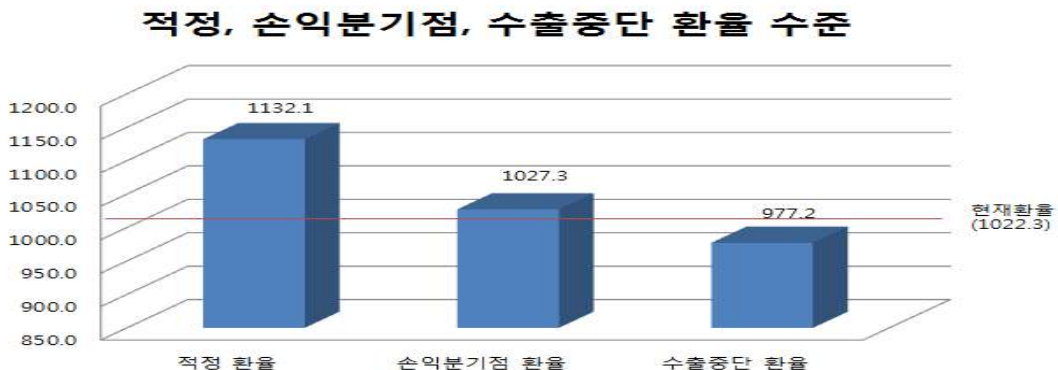
- 신발섬유 업종은 중국, 동남아 지역으로 주로 수출하며, 이들 지역에서 치열한 가격 경쟁이 진행중
- 가격경쟁력이 최우선시 되는 업종의 특성상, 최근의 환율하락 기조로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발섬유 업종 중 절반에 달하는 업체는 현재 환율 상황에서 적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선 유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수출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남



3. 지역 수출기업의 걱정, 손익분기점, 수출중단 환율

지역 수출기업의 걱정 환율은 1,132.1원, 손익분기점 환율은 1,027.3원, 수출중단 환율은 977.2원.

- 응답업체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걱정 환율수준은 『1,132.1원』, 손익분기점 환율은 『1,027.3원』, 수출중단 환율은 『977.2원』이었음
 - 2014. 6. 17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022.3원(매매기준율 기준) 수준으로 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1,027.3원)에도 미치지 못함
 - 이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채산성과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어 입찰 포기 및 수주 감소가 나타나거나, 일부업체는 손실을 감내하며 수출을 진행하는 등 각종 어려움에 봉착.
 - 반면, 수익성 제고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걱정 환율수준은 1,132.1원으로 조사되어, 현재 환율과 큰 차이를 보여, 지역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수출 포기예에 이르게 되는 수출중단 환율 수준은 977.2원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환율하락 기조 지속이 전망되는 가운데, 환율하락으로 기업의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 대응방안이 조속히 요구되고 있음
 - 업종별로는 8개 업종이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섬유신발 업종은 손익분기점 환율과 수출불가 환율이 각각 1,039.4원, 996.7원으로 평균을 웃돌아, 환율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환율하락 지속에 따른 대응방안

환율하락 지속에 따른 지역 수출 기업의 대응방안은 『타분야 원가절감』

- 환율하락 지속에 따른 지역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타분야 원가절감』이 37.3%로 가장 많았음
 - 이어, 『수출시장 다변화』 18.7%,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 14.7%, 『품질경쟁력 강화』 12.7%, 『수출 중단』 11.3% 순
 - 현재 환율수준에서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약화, 수출 계약 취소, 입찰 탈락 등으로 매출이 부진함에 따라, 전사적인 원가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공격적인 해외마케팅 방안을 모색하여 신규 거래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며,
 - 그 외에도, 환율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 방안을 모색하거나, 품질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을 계획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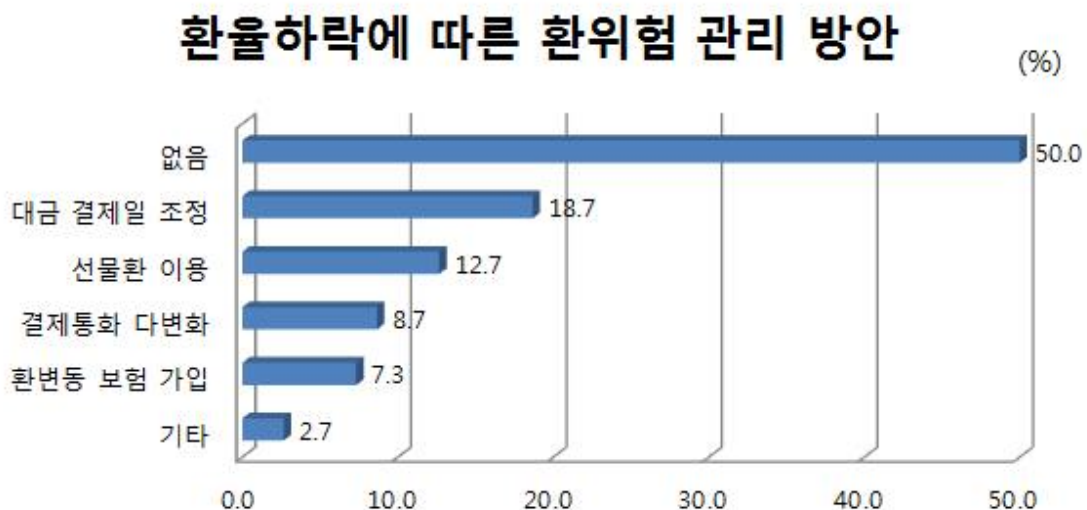
환율하락 지속에 따른 대응방안



5. 환율하락에 따른 환위험 관리 방안

지역 내 많은 수출 기업에서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환위험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환율하락에 따른 환위험 관리방안으로는 『없음』이 50.0%로 가장 많았음
 - 이어, 『대금 결제일 조정』 18.7%, 『선물환 이용』 12.7%, 『결제통화 다변화』 8.7%, 『환변동 보험 가입』 7.3% 등의 순
 - 환율하락 지속으로 지역 내 많은 수출기업에서 기 수출 물량의 환차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환위험 관리에 대한 정보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환위험 관리에 소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선물환 이용』, 『환변동 보험 가입』 등의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 방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20.0%에 지나지 않으며,
 - 일부기업은 전문적인 환관리 방법없이, 관리자 임의의 판단하에 비체계적인 환변동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어, 환율하락에 따른 피해 우려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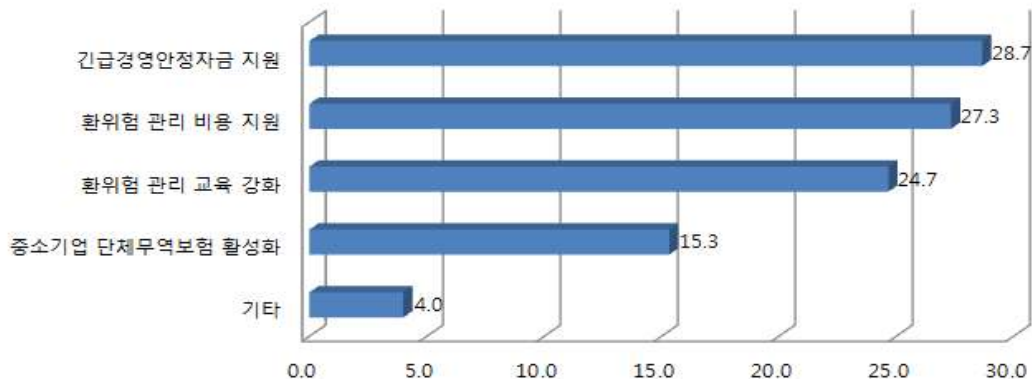
6. 환율하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환율하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지원방안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28.7%)가 가장 많았음

- 환율하락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지원방안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응답비중이 28.7%로 가장 높았음
 - 환차손, 수출부진 등으로 지역 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보이는 기업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유망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됨
- 이어, 『환관리 비용 지원』 (27.3%), 『환위험 관리 교육 강화』 (24.7%), 『중소기업 단체무역보험 활성화』 (15.3%) 등의 순
 - 지역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관리 비용 부담으로 환관리를 하지 않는 기업이 많아, 환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이 부담없이 환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또한, 환위험 관리 지식 및 역량 부족 등으로 환위험에 노출된 기업을 위해 환위험 관리 교육 및 설명회 등을 활성화하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

환율하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



7. 정책제언

□ 기업지원 방안(단기적)

1. 정부의 기업 외화수출대금 매입을 통한 기업 지원 및 환율 안정 노력 필요

- 지역 내 많은 수출기업에서 환위험 관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최근의 환율 하락 기조로 수출대금 수금 시점에 환차손이 크게 발생
- 이에, 자금사정이 양호한 기업들은 환율상승을 기대하며 외화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향후 기업 보유 외화가 시장에 풀릴 경우 환율하락을 촉진시킬 위험요소로 대두
 - 기업의 환차손 최소화와 환율하락 방지를 위해, 환차손이 심각한 기업에 한해, 정부가 기업의 외화 수출대금을 매입하고, 환전우대를 적용하여 기업에 원화를 제공
 - 이를통해, 기업들은 정부혜택으로 환차손을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고, 정부는 외화가 풀려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2. 노동 유연성 강화로 기업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정책방안 필요

- 환율급변동 시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노동력의 탄력적 활용을 통한 원가절감이지만, 노동규제 강화로 쉽지 않은 실정임
 - 한 예로, 과거 원청업체 일부는 예상을 벗어나는 환율하락으로 인해 협력업체에 단가 인하 강요
 - 부산지역 기업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원청업체의 1,2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직접적 타격 불가피
 -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노동력을 활용하였다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으나, 노동규제 강화에 의해 채산성 악화를 감수하는 방법밖에 없었음
-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돕고자,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 적용시기 지연 등의 노동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 기업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노동정책 요구
 - 또한,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통상임금의 적용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등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노동정책이 요구됨

□ 기업지원 방안(장기적)

1.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기술력 제고를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유도

- 품질 향상,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 등의 비가격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 향후에도 환율 하락 기조 지속으로 가격경쟁력 약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가격경쟁 위협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지역기업 제품이 가격 부문 열세를 상쇄하는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 부산지역의 연구개발 기능이 오히려 크게 약화되고 있어 신기술 개발과 신성장 산업 육성이 부진함.
 - 또한, 대부분 중소·협력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금난 등으로 자체 연구소 보유가 힘들어, R&D 부분의 정부지원이 시급함
- 이에, 소재·부품 융합 기술원을 설립하여,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산업 등의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IT융합, 탄소융합 등의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고부가가치화 및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이를통해, 주력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여, 환율하락 기조에도 불구하고 비가격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수출활성화 기대